다시 '컨택트 연등회'…연등행렬 만난다

연등회보존회, 올해 연등회 일정 공고

송지희 · 하성미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4월 5일 봉축점등식 시작으로
4월 30일 연등행렬 등 이어져
코로나 사태 후 3년만의 재개
부산 · 전북도 행사 일정 확정

올해엔 거리를 장엄하는 연등행렬과 전통문화마당을 다시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연등회는 지난 202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큰 변화를 맞았음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간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돼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축제'의 장을 대면형태로 재개하는 이번 연등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연등회보존회(회장 원행)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불기 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봉행일정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연등회보존회는 '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를 표어로 내세우고, 올해 봉축연등회를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준하는 규모의 대면행사로 재개키로 했다. 부산불교연합회와 전북봉축위원회도 올해 대면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다양한 봉축행사를 준비 중이다.

봉축연등회는 4월 5일 오후 7시 서울 시청 광장에서 봉축점등식을 시작으로 포문을 연다. 점등식은 2020~2021년에도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진행된 바 있다. 올해 봉축탑은 화엄사 사사자탑을 원형으로 한 7m 규모의 탑이다. 4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전통등 전시회가 이어진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상징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통등이 서울 조계사, 봉은사, 청계천 일대를 장엄할 예정이다.

연등회의 메인행사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어울림법석도 진행된다. 부처님오심을 찬탄하는 연희단의 신나는 율동과 찬불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자들과 참여단체들의 열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불기 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정

행사명	일 정	장 소
봉축점등식	4월 5일(화) 오후 7시	서울광장
전통등전시회	4월 29일(금)~5월 15일(일)	조계사(우정공원), 봉은사, 청계천
어울림마당	4월 30일(토) 오후 4:30	동국대학교 대운동장
연등행렬	4월 30일(토) 오후 7:30	흥인지문~종로~조계사
회향한마당	4월 30일(토) 오후 9:30~11:00	종각사거리
전통문화마당	5월 1일(일) 정오~오후 7:00	조계사 앞길
연등놀이	5월 1일(일) 오후 7:00~9:00	조계사 앞길 공평무대
공연마당	5월 1일(일) 정오~오후 6:00	공평무대/안국무대
봉축법요식	5월 8일(일) 오전 10시	조계사와 전국의 사찰

연등행렬은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된다. 흥인지문에서 종로를 지나 조계사까지 거리를 가득 메운 장엄한 연등의 물결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연등행렬 관람석과 회향한마당은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행렬에 이어 저녁 9시30분부터는 종각사거리에서 회향한마당도 재개된다. 회향한마당은 부처님오심을 찬탄하는 법석이자, 축제의 현장분위기를 극대화하는 화룡점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1일 정오부터는 서울 조계사 앞길에서 전통문화마당이 열린다. 전통문화마당은 연등만들기와 전통놀이 체험을 비롯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 불교문화유산 등 다양한 불교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계기로 매년 국내외 관심이 집중돼 왔다. 올해 전통문화마당 역시 조계사 앞길을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부스들이 마련돼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을 예정이며, 공평사거리 특설무대에서 전통문화공연이 진행된다. 오후 7시부터는 조계사에서 안국동사거리를 거쳐 인사동과 종각역으로 이어지는 연등놀이가 특별한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처님오신날 당일인 5월 8일 오전 10시 봉축법요식이 서울 조계사와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된다.

부산과 전북지역도 올해 연등회 일정을 대면행사를 중심으로 확정했다.

우선 부산 연등행사는 부산연등문화제와 부산연등회, 복원 전통등 특별전으로 진행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3월 21일 부산시민공원 내 다솜갤러리에서 '부산연등축제 복원 전통등 특별전'을 개막하며 부산연등축제 시작을 알렸다. 부산연등문화제는 4월 22일 송상현광장 일대에서 개막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8일까지 17일간 이어지며 대형 전통등 전시를 중심으로 각종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4월 23일~24일 전통문화한마당, 4월 22일~5월 8일 소원등 달기, 5월 1일 오후 4시 무차만발공양, 4월 22일~5월 8일 무료스냅사진 체험이 이어진다.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3월 4일 회의에서 봉축일정을 확정했다. 올해 봉축행사는 4월 9일 전주역 앞 광장에서의 기원탑 점등을 시작으로 5월 1일 전북어린이 큰 잔치, 6탄약창 연등제, 연합합창제, 청소년 모악축제와 함께 4월30일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대규모 봉축행사를 봉행하고 전주의 도심에서 연등축제를 개최한다.

군산, 익산 등 전북의 주요도시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연등축제등 봉축행사가 열리고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등 사회 안전 기관과 각급 복지시설 등에서도 위문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10월 회관건립 20년 행사…'샤카디타' 준비 만전

전국비구니회, 3월 23일 정기총회서 올해 사업 확정

사찰공동체 · 수행처 운영 등 추진
사찰 유지 인재연계 · 법사단 구성

올해 전국비구니회는 기존사업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찰공동체 시범운영과 사찰 관리자 · 후계자 연계 시스템 시범구축, 직능별 법사단 발굴 연계 및 시범운영 등 비구니 스님들을 중심으로 활동저변을 확대하는 다양한 신규사업에 나선다. 특히 비구니 수행결사 회향을 비롯해 10월경 회관 건립 2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및 기념자료 발간을 추진하며, 2023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18회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3월 23일 회관 1층 메따공연장에서 제15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는 감사결과보고와 회칙제개정의 건, 2021년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의 건,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 등 안건으로 진행됐다.

올해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 공동체 사찰 및 상설수행처 마련을 위한 시범사찰 발굴운영에 나선다. 이는 12대 출범 첫해 비구니스님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비구니 수행과 노후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공감대가 모인 데 따른 것이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해 비구니 사찰공동체 구성을 위한 사찰 건립 및 대상사찰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왔으나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해 구체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이와 함께 비구니사찰의 지속유지를 목적으로 사찰관리자 승계를 위해 후계자를 원하는 사찰과 스님간 연계, 비구니 인력 활용의 토대 구축을 위한 시범사례를 발굴한다. 직능별 불자회 현황파악을 토대로 지도법사단을 발굴해 불자들의 포교 및 신행에 보다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비구니회는 3월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을 확정했다.

전국비구니회관 건립 20주년 기념행사는 10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된다. 20년 전 비구니 어른스님들의 원력을 재조명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건립 당시 기록들을 정리한 기념자료집 발간도 준비 중이다.

올해 천진암 · 주어사 등 천주교성지화로 인한 불교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연구자료집 발간 및 포럼, 교육 등 종교편향 불교역사제자리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푸르니청정도향환경캠페인 등 대사회 분야도 전국사찰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승가발전을 위한 미래포럼 개최, 독거노스님 장례문화사업 구축을 위한 사례발굴 사업, 외국사미니 양성프로그램도 새롭게 시행된다.

지난 2021년 입재한 비구니수행결사도 2023년 회향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올 한해 매년 1~2회 수행법석과함께, 법문과 포살, 큰스님 초청 수행결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수행결사는 2023년 4월 제29차를 끝으로 회향한다.

2023년 6월 한국에서 봉행될 제18대 샤카디타 세계불교여성대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이를 위해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장소와 일정, 프로그램 등을 올해 중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행사대행을 맡은 김분희 메시인내셔널 대표에 따르면 샤카디타 대회는 2023년 6월 23일~27일로 잠정 추진 중이며, 장소는 부산 벡스코와 서울 킨텍스를 후보군으로 두고 지자체 지원 등을 폭넓게 검토 중이다.

한편 올 6월 11일 임기만료 예정인 제1기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은 연임한다. 이는 지난 2월 28일 열린 제31차 운영위원회에서 현 위원장 상덕 스님의 연임을 결의한데 따른 것이다. 제32차 운영위원회는 9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종립학교에 예비출가자 입학전형 추진

정범 스님 등 종회의원 20인 입법안 제출

동국대 등 조계종립대학에 예비출가자 입학전형 신설을 통해 젊은 인재 출가를 장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장려특위 위원장 정범 스님을 비롯한 중앙종회의원 20인은 제224차 임시회에 '청소년출가 ·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3월 22일 총무분과(위원장 선광) 간담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범 스님이 제출한 특별법은 출가장려특별위원회 주도로, 종단 출가자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 결과가 반영됐다. 종립대학 입학시 출가를 전제로 입학생을 모집하고, 이들 예비출가자가 4년 재학 후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할 경우 행자교육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예비출가자가 대학원을 졸업하면 구족계를 수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출가를 전제로 종립대학에 입학한 인재들에게 종법의 틀 안에서 혜택을 부여해, 청년 출가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출가자의 정의에 기존 소년출가와 청년출가, 단기출가 외에 '청년예비출가' 항목를 신설했다. 청년예비출가는 고등학교를 졸업(예정자 포함)했거나 동등한 자격을 갖춘 만 3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5계를 수계받고 종립대학(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 예비출가자 전형으로 입학해 졸업 후 출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예비출가자는 대학입학 전까지 은사를 정해 대학에 제출하고, 교육기관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예비출가 전형으로 입학시 학과 공부 외에 염불 등 습의를 익혀야 하며, 교육기관의 단체기숙사 생활을 하고 대학원 졸업과 비구(니)계 수계 후 종단에서 지정하는종무기관 · 군승 · 사회복지기관 · 사찰성보박물관 등에서 3년 이상 의무복무토록 했다. 또 예비출가자가 졸업 후 승려법에 의거해 사미(니)계 수지시 행자교육과정이 면제된다. **송지희 기자**

